

강홍립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 <책중일록>과 <강로전>를 중심으로 -

박 양 리*

차 례

- | | |
|--------------------------------|------------------------|
| I. 서론 | 2. 和와 降 |
| II. <책중일록>과 <강로전>에 나타난 강홍립의 형상 | 3. 외교사절과 변절자 |
| 1. 노력하는 지휘관과 교활한 책략가 | III. <책중일록>과 <강로전>의 거리 |
| | IV. 결론 : 이념적 고착화와 변주 |

국문초록

이 글의 관심은 역사적 실존인물인 강홍립이 이민환의 <책중일록>과 권척의 <강로전>에서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가에 있다.

<책중일록>에서 강홍립은 대내외적인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사를 잘 이끌고자 노력한 인물이며 동시에 패배한 뒤에도 체면과 엄치를 지키며 화의를 택한 인물이었다. 이에 반해 <강로전>에서 그리는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지를 핑계 삼아서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교활한 책략가에 비굴하게도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은 항적이었다. 후금에서의 포로생활 중의 행적에 대해서도 두 작품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다.

* 부산대 국문과 강사

<책중일록>의 강홍립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외교사절이었는데 반해 <강로전>에서 강홍립은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판 변절자로 그려진다.

이러한 전혀 다른 두 모습의 강홍립이 그려진 것은 바로 두 작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랑캐에 항복한 인물로 관직 생활에 제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민환은 자신들은 항복한 것이 아니라 화의한 것이며 절개를 지켰다고 그 실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하여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인 원수 강홍립을 내세웠던 것이고 효과적인 서술을 위해 사실지향적인 일록의 형태를 통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했다. 권척은 도망친 자로서의 자신의 도덕적 위상을 위해 그와 반대되는 포로가 된 장수들을 대표하는 강홍립을 비난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강홍립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결국 권척은 포폄의 의도를 명확히 하여 강홍립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평가하기 위해 전을 창작했던 것이다. 실재했던 역사가 어떻게 작가 혹은 시대의 이념에 따라 재구성되어 문학으로 탄생하는가, 그 생생한 모습을 <책중일록>과 <강로전>은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강홍립, 심하전투, <책중일록>, <강로전>, 문학적 형상화

I. 서론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는 이른바 ‘명·청 교체기’로 대륙의 패권을 두고 쇠락해가던 명과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던 후금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진 시기이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기에 조선 역시 태평할 수는 없었다. 1616년 국호를 대금(大金)으로 정한 누르하치는 1618년에는 명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무순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에 충격을 받은

명은 양호를 요동경략으로 임명하고 대대적인 토벌군을 준비하였다. 명은 평소에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여 왔던 ‘순이(順夷)’인 조선을 이용해서 ‘역이(易夷)’인 후금을 공격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조선에 원병 파견을 요청하였다.¹⁾ 명의 계속된 조병 요청에 조정은 1만 2천여 명의 군사를 요동으로 파병하였다. 조선군은 명 장수 유정(劉綎)의 휘하에 배속되어 노추(奴酋:누르하치)가 머무르는 성(興京老城)으로 향했지만, 불과 보름도 안된 3월 4일 후금의 철기군을 만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만다. 명의 장수와 군졸들이 대부분 전사한 상황에서 조선군 역시 1만 2천여 명의 장병 가운데 최대 9천 명 정도가 전사하였고, 살아남은 장수들은 후금의 포로가 되고 만다. 이때 조선군을 이끌고 심하로 출병했다가 포로로 잡힌 인물이 바로 강홍립이다. 강홍립은 약 8년간 후금에 잡혀있다가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후금군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온다. 동아시아 격변기에 그야말로 파란만장을 산 인물이다.

강홍립을 주인공으로 다룬 작품은 많지 않다. <김영철전>, <최척전> 등에 심하전투 장면이 등장하지만 강홍립은 그야말로 부수적 인물로 아주 잠시 등장할 뿐이다. 강홍립을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권척의 <강로전>이다. <강로전>은 우리 소설사에서 부정적 주인공이 등장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²⁾ 그 후 역사소설의 관점에서 소설적 성격을 파악하거나 서사동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³⁾ 그런데 <강로전> 외에 강홍립과 심하전투를 다룬 작품이 있어 주목을 끈다. 바로 이민환의 <책중일록>이다. <책중일록>은 심하전투에 문종사관으로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었던 이민환이 남긴 기록이다. 이민환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시선은 시종일관

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244쪽 참조.

2) 박희병, 「17세기 초의 송명배호론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 문학 上』, 집문당, 1998.

3)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신승호, 「강로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5.

강홍립에게 향해있다. 사학계에서는 심하전투와 광해군대의 외교정책을 평가하는 일환으로 이 작품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기도 하였다.⁴⁾ 또한 이 민환의 생애와 문학을 재조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의 문집 『자암집』 중 <책중일록>과 <건주견문록>이 비중 있게 소개되기도 하였다.⁵⁾

이 글의 관심은 바로 이 두 작품에서 강홍립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가에 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실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은 과거 사실의 재현이다. 작가가 자신의 사고와 논리를 기반으로 재구성해 낸 것이 역사를 대상으로 한 문학이다. 그 때문에 재현해내는 내용은 사실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의 관심은 강홍립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이 작품 중 어느 쪽이 진실이냐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 다만, 동일한 사건과 인물에 대해 두 작품이 어떻게 다르게 재현하고 있는지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항목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책중일록>과 <강로전>에 나타난 강홍립의 형상

1. 노력하는 지휘관과 교활한 책략가

심하전투는 사실상 1619년 3월 4일 부거(副車)에서 벌어진 단 한차례의 전투로 그 승패가 갈리었다. 이 단 한번의 전투로 명나라 군대는 거의 전멸하고 조선군 역시 3분의 2 이상이 전사하였다. <책중일록>과 <강로전> 둘 다 바로 이 날의 전투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

4) 고윤수,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 123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5) 장재호, 「자암 이민환의 생애와 저술」, 『동방한문학』 제32집, 동방한문학회, 2008; 안세현, 「자암 이민환의 <책중일록>과 <건주견문록>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제34집, 동방한문학회, 2008.

데 패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두 작품은 상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원수’로서의 강홍립의 형상화가 극명하게 갈린다.

<책중일록>에서 이민환은 조선군을 압박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부거에서의 전투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사정이 어려웠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명나라 군대 지휘부의 내분이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대개 제독이 경략에게 미움 받는 바가 있어, 기약을 어기는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였다. 매번 우리 군사가 낙후하여 병사가 쉬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핑계대었다. 그 형세가 장차 죄를 우리 군에게 돌려서 스스로 변명으로 삼고자 하였다. 고로 원수가 부득이 굶주린 병사를 재촉하여 험한 함정에 깊이 들어갔다.⁶⁾

교육격의 밀언장에 “유제독이 평소(에 (양경략과) 서로 능히 지내지 못했다. 전일 요동에서 만나 의논하던 때에, 유제독이 4-5월을 기약해서 물러나고자 하니, 경략이 크게 노하였다. 그리고 친하고 믿는 두 사람, 장성 및 우승은으로 하여금 흥기를 가지고 진을 감독하게 하였다. 또 나에게 밀첩을 보내, 유제독이 만약 머무르려고 하면, 곧 동로의 기마군을 맡으라고 하였다. 지금 거사하는 여러 장수들 중에서 두학, 임용은 피가 없고, 그 나머지는 곧 평이하다.” 하였다.⁷⁾

명나라 군대에서 최종 책임자는 무순 지역의 총독인 왕가수였다. 그리고 군대를 총괄하는 장수가 경략인 양호였고, 다시 그 아래 조선군을 포

6) 蓋提督見忤於經略懼以失期見罪，每以我軍落後未易進兵爲言，其勢將歸罪於我軍以爲自免之地，故元帥不得已催督飢卒深入險阻。(<책중일록>, 『자암집』, 한국문집총간 82, 117a, 이하 <책중일록>의 인용은 <책중일록>으로 지칭하겠다. 이 작품의 번역은 2008년 2학기 부산대학교 고전소설작가론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7) 喬密言楊劉素不相能，前日會議遼東時，劉欲退師期於四五月，經略大怒使親信二人張姓及于承恩持紅旗督陣，又密帖於俺，劉若逗留則當總領東路馬軍云，今者舉事諸將杜鶴林勇而無謀，其餘則平平云。(<책중일록> 116b)

함해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제독 유정이 있었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경략과 유제독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반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나라 지휘부의 반목이 그 아래 병졸들에게 긍정적 일리 없다. 제독은 조선군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군이 느리다고 강홍립을 재촉한다. 그러나 강홍립으로서는 더 이상 행군을 재촉할 수 없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조선군 내부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군량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병사들이 굶주리고 쇠약해졌던 것이다.

이때 삼영이 가지고 온 양식이 끝내 다하였고, 군량의 운반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보졸이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정강이의 종기에서는 피가 흘러 명나라 병사와 더불어서 진을 연결하지 못하였다.⁸⁾

원수가 삼영에 영을 내려 각 초소에서 군사들을 풀어 놓아서 부락을 약탈하여 그 물어둔 곡식을 얻어 돌고무래로 찢어 죽을 끓여 먹었다.⁹⁾

이민환은 군량 부족이 보급을 담당한 평양 순찰사 박엽과 분호조참판 윤수겸이 맡은 바 일을 다하지 못해서라고 지적한다. 또 나아가 그들을 효시하여 본보기로 삼을 것을 강홍립에게 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강홍립은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잘 이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교유격에게 쌀 10부대를 빌려서 굶주린 병사들을 먹이게 하면 제독에게 오랑캐 무리들을 선동할 계책을 간하기도 한다.

한편, 권척의 경우 보급의 문제를 애초부터 강홍립의 농단으로 그리고 있다.

홍립은 통군정에 앉아서 군대를 점고하더니 ‘건장한 군졸과 쇠약한 말’, ‘쇠약한 군졸과 건장한 말’로 나누어 양군을 조직하였다. 전자의 군대는 병사들이 먹을 군량과 말 먹일 사료를 온전히 운반하게 하며 후방에서 따라오게 하고, 후자의 군대는 홍립이 몸소 통솔하였다.¹⁰⁾

8) 時三營糴糧垂盡而運餉未到，步卒跋涉脛腫流血，不得與天兵聯陣。

9) 元帥令三營各哨放軍掠於部落，得其埋穀以石搗碎糜粥而食。

조선의 장수들도 입을 모아 말하였다. “군량이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매번 군량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도둑의 화를 돋우니 무슨 의도이십니까?” 홍립이 말하였다. “밀지가 내게 있으니,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네.”¹¹⁾

첫 번째 인용에서는 휘하 장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병사들의 행오를 조정하여 일부러 군량의 보급이 늦어지도록 만든 홍립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뒤이어 두 번째 인용에서는 그러한 강홍립의 계략 뒤에는 광해군의 밀지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사실 이 ‘밀지’의 존재여부는 아직까지도 그 진위가 불분명하다.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의 입장에서야 재조지은(再造之恩)의 나라인 명을 배신한 광해군의 부도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밀지의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광해군 일기>에서조차 이 밀지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어 사실 여부를 명확히 논증하기는 어렵다.¹²⁾ 그러나 사실여부가 어찌 되었든 간에 권척이 <강로전>에서 굳이 이 밀지의 존재를 세 차례나 언급한 것은 그가 강홍립을 통해 광해군의 부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하겠지만, 부도덕하여 폐위당한 임금 광해군의 밀지를 받고 그에 따라 병사들을 굶주리게 하고 명군에게 거짓을 고하는 강홍립은 부도덕한 광해군과 다름 없다는 것을 권척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권척은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으로 강홍립이 전투 전에 누르하치와 밀약을 맺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강로전>에서 강홍립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 여진 통역관 하서국 등 세 사람을 불러 건주의 누르하치에게 강화할 것을 청하는 봉서를 보낸다. 이를 받은 누르하치는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오직 조선군이 협동하여 공격하는 것일 뿐이었다. 일찍이 거란이

10) <강로전>, 신해진 역, 『권척과 한문소설』, 보고사, 2008, 113쪽, 이하 <강로전>으로 지칭하겠다.

11) <강로전>, 116쪽.

12) 한명기, 앞의 책, 257쪽.

10만의 정예군을 이끌고 깊숙이 들어갔다가 수레 한 대도 돌아오지 못하였고, 또 조선의 병사들은 날래고 병기도 훌륭하여 대적하기가 어려움을 평소에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항복 문서를 보내왔으니, 어찌 하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 금나라의 남긴 훌륭한 공적을 다시 잊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¹³⁾라며 기뻐하고 귀영가로 하여금 명나라 군대를 먼저 물리치고 조선군의 항복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아군을 패배로 몰고가는 비겁한 책략을 꾸며내는 존재로 강홍립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요동을 건넌 후 조선군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시각은 물론 그에 대응하는 강홍립의 처신 역시 두 작품에는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29일, 원수가 제독을 보았다. 힘써 말하길 “사졸들이 굶주리고, 군량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하나같이 나아간다면, 일이 심히 낭패일 것입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길 “군의 기일(출격할 기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잠시도 머무를 수 없다. 그러나 원수의 얼굴을 보아서 하루를 머물렀다.”고 하였다.¹⁴⁾

홍립이 말했다. “군량은 후방에 있고 병사들은 굶주렸으니, 머물러 있으면서 군량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형세입니다. 또 오랑캐의 지형은 험악하여 척후병을 보내어 적정을 살피기가 매우 어렵고, 군대라 깊숙이 들어가서 고립이라도 된다면 들어가는쉬웠어도 물러나기가 어려울 걸이니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도독이 말하였다. “대군이 모두 합류하였으니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형세이며, 또 출병할 기일도 이미 정해진 이상 주저할 것 없이 속히 진격해야만 할 것이요.” 홍립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나왔다. 도독은 성내며 말하였다. “조선의 사람 쓰는 것이 저러하니 패하는 것 말고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리오? 영웅이 바로 눈앞에 있거늘 어찌하여 교활함만 있는 저런 소인배에게 병사의 목숨을

13) <강로전>, 117쪽.

14) 二十九日。元帥見提督。力言士卒飢餒。運糧未到。一向前進。事甚狼狽。提督曰。軍期已定。不可暫住。而看元帥面。留一日云 (<책중일록> 117b)

맡겨놓아서, 도착하자마자 한다는 말이 고작 머물자는 계책뿐이란 말인가.”¹⁵⁾

강홍립의 발언은 <책중일록>이나 <강로전>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 지휘부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책중일록>의 경우 지속적으로 행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교유격에게 쌀을 빌려 병사들에게 나누어주는 강홍립의 모습을 그리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행동거지를 보여왔기에 행군을 늦출 것을 청하는 강홍립의 발언은 그럴법하고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온갖 계략을 일삼았던 <강로전>의 강홍립의 입에서 나온 동일한 발언은 마치 비루한 변명처럼 보이고, 명 도독의 질타는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무참히 패배한 3월 4일의 전투. 그 전투가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민환과 권척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분열된 명나라 지휘관의 사정과 원활하지 못한 보급 상황 속에서 병사들을 먹이고 최대한 그들을 살리고자 애쓴 <책중일록> 속의 강홍립은 노력하는 지휘관으로 그려진다. 반면 보급의 문제를 광해군의 밀지를 지닌 강홍립 자신의 계략으로 설명하고 있는 권척의 <강로전>에서 그는 교활한 책략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2. 和와 降

3월 4일의 패배 이후 강홍립은 살아 남았다. 만약 패배 이후 그가 후금군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고 포로가 되었다. 패배 직후의 상황 그리고 후금군에 포로로 잡히는 상황 속에서 강홍립의 처신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다시금 <책중일록>과 <강로전>의 이야기가 달라진다.

15) <강로전>, 114-115쪽.

<책중일록>에 따르면 패배 이후 먼저 손을 내민 쪽은 후금이었다. 병사들이 두 영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무기를 던져버리고 싸움 의욕이 없는 것을 보고 강홍립은 스스로 화약상자를 앞에 두고서 자결하고자 하였다. 바로 그때 후금군의 통사가 온 것이다.

마침 한 병졸이 두 영으로부터 탈출해 와서 말하기를 “적기가 진 앞으로 먼저 와서 통사를 계속 부르는데, 답하지 못했습니다.”하였다. 양원수가 즉시 통사 황연해에게 명하여 나아가 응하게 하였다. 오랑캐가 곧 답을 보고받고 와서 물기를 “우리가 중국인과 원한이 있는 고로 서로 싸운다. 너희나라는 본래 원한이 없는데 어찌해서 와서 정벌하는가.” 하였다. 통사가 답하기를 “양국은 전부터 원한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들어 온 것은, 재촉당하여 부득이한 것이다. 너희 나라가 어찌 그것을 모르는가.” 하였다. 호장이 한 오랑캐를 보내어 진 앞에 와서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뜻은 우리 나라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하였다. 마침내 더불어 왕복하여 화의하는 일을 하였다. 호장이 양 원수를 만나 화의할 것을 청하였다. 즉 군관 박종명에게 영을 내려 중군이라 칭하게 하고는 내보내 화의하게 하였다. 호장이 또 대장의 얼굴을 마주하고 의논할 것을 청하였다. 양원수가 서로 의논하기를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불과 한번 죽을 뿐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서로 군대를 풀어서 물러난다면 3~4천명의 군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며 눈앞에서 적의 돌격을 당하는 우환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¹⁶⁾

패전 이후 조정에서는 강홍립을 비롯한 장수들이 적에게 항복하였으니 그들의 가족을 구금하고 직명을 삭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16) 適有一卒。自兩營得脫來言。賊騎先到陣前。連呼通事。而營中無通事。不得答。兩帥卽令通事黃連海出應。虜卽報答而來問曰。我與唐人有怨。故相戰。汝國則本無仇怨。何爲來伐乎。通事答稱。兩國自前無怨。今此入來。迫不得已。汝國豈不知之乎。胡將遣一藩胡。來到陣前。曰。汝國之意。我國亦知之矣。遂與往復和解之事。胡將請見將帥議事。卽令軍官朴從命。稱以中軍出送議和。胡將又請見大將面議。兩帥相議。事至於此。不過一死。而萬一交解而退。則三四千軍卒之命。可以生活。目前邊上衝突之虞。可以少紓矣。(〈책중일록〉 119d)

도 했다.¹⁷⁾ 그러나 이민환은 그날 일의 전모를 밝히면서 ‘항복’이 아니라 ‘화의’이며 그 또한 강홍립 자신이 아닌 후금 측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화의를 허락한 것은 훗날을 대비한 결단이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민환은 <책중일록> 속에서 강홍립과 장졸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번도 ‘降’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和, 和好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항줄이 아니라 화의를 위해 살아남은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강로전>의 경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통사를 먼저 보낸 것은 강홍립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 전투에서 승리한 후금 측의 대장 귀영가가 기병을 보내 통사를 부르자 홍립이 기뻐하며 “과연 하서국의 전갈함이 능통하구나”라며 말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화의든 항복이든 어쨌든 일차적으로 <강로전>에서는 먼저 손을 내민 쪽을 강홍립으로 설명한다.

이렇다보니 누르하치의 첫 대면에 있어서 두 작품에서 그려내는 강홍립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도 당연하다. 다음 두 인용문을 보자.

노추가 양원수를 보기를 청하였다. 내가 양 원수 및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오늘 노추를 보는 것은 곧 평생에 행하는 일을 판단하는 날입니다. 읍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만약 조금이라도 두려워 겁내는 뜻이 있다면, 마땅히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양원수가 장령 5·6 인으로 더불어 군관, 통사 십여 인을 이끌고 갔다. 노추가 궁시를 끼고 평상에 의거하여 앉아 있었는데, 갑옷 입은 병사 수천이 정원의 좌우에 배열해 있었다. 양원수가 섬돌에 올라 읍을 행했다. 노추가 진노하자, 양원수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예를 행하였으니, 그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 있어 양원수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약 군신의 예로써 이치를 따진다면, 즉 교의좌(당상관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든 의자)를 너희들에게 배설하였겠는가? 너희 나라 관리가 양경략을 벌 때도 또한 두 번 절하는 예를 행하는데 어찌하여 읍을 행하고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예라고 말하는가?” 하였다.¹⁸⁾

17) 『광해군일기』 11년 3월 을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장읍을 하니, 누르하치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너희가 사신으로 이곳에 왔다면 읍을 하는 것도 괜찮다만, 너희는 투항한 자이거를 감히 데면데면할 수가 있느냐!” 홍립이 겁내고 두려워하여 먼저 무릎을 굽혀 네 번 절하였다. 경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절을 했다.¹⁹⁾

<책중일록>에서 그려낸 강홍립은 대의를 위해 화친하러 간 선비로서의 의연함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강로전>에서 강홍립은 ‘투항한 자’라는 누르하치의 지적에 변변한 반박 한 번 하지 못하고 쉬이 무릎을 꿇고 만다.

화의를 위해 굴욕을 견디는 의연한 선비인가 아니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항적(降賊)인가. 이민환과 권척은 각각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제 3자를 등장시키기도 한다. 이민환은 요동 사람으로 보를 지키다가 포로가 된 왕기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킨다. 그는 강홍립을 보고 “요동에 있을 때에 조선장수가 잡혀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탄식하고 우러르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²⁰⁾라고 감복한다. <강로전>의 경우 오랑캐 아이들의 입을 빌려 더욱 선명하게 강홍립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낸다. 홍립이 호중에 다다르자 길가에 늘어선 오랑캐 아이들은 “구차하게 살기 위해 지조 팔고 행복한 놈들. 개돼지만도 못하다!”라고 욕을 한다. 이 아이들의 말이야말로 권척이 그리고자 한 강홍립의 모습이다.

과나 降이냐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였다. 행복한 장수, 특히 오랑캐에

18) 奴酋請見兩帥，生言于兩帥及諸將曰，今日之見奴酋乃平生行事判斷之日也，不可不行揖而若少有懼怯之意則適足以取辱矣。兩帥與將領五六人率軍官通事十餘人而往，奴酋挾弓矢據牀而坐甲士數千排列庭之左右，兩帥登階行揖奴酋頓怒，兩帥曰 行我國之禮不得不然。有一人解華語者謂兩帥曰，若責以君臣之禮則設交倚坐你們乎，兩國之官見楊都爺亦行兩拜禮，何謂行揖是我國禮乎。(<책중일록> 121d)

19) <강로전>, 125쪽.

20) 遼東人王起功以守堡官被擄，來到柵中言曰，在遼東時間朝鮮將帥被執不屈，人莫不歎仰。(<책중일록> 129b)

게 항복한 것은 반신(叛臣)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和였음을 주장한 이민환이 그려내는 강홍립은 의연하고 엄치를 아는 선비요, 降이라 주장하는 권척이 그려내는 강홍립은 구차하고 비겁한 졸장의 모습인 것이다.

3. 외교사절과 변절자

강홍립은 1619년 3월 5일에 후금군의 포로가 되어 1627년 1월 정묘호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홍경에 억류되어 있었다. 중간에 몇몇 군졸들이 달아나기도 했고 1620년 7월에는 이민환과 문희상, 이원일 등이 송환되기도 했지만 강홍립의 경우는 무려 8년에 가까운 포로생활을 한 셈이다. 이 후금에서의 그의 처신을 두 작품에서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 <책중일록>의 강홍립의 경우 그들이 살아 홍경에까지 이른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오로지 화의하는 일 때문이었다. 당연히 후금 땅에서 강홍립의 행적은 이 화의와 관련된 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민환은 특히 강홍립이 누르하치의 충신들과 나눈 대화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6월 초1일, 아두, 언가리, 대해, 류해등이 차관에게 원수가 머무르는 곳에서 만나기를 청했다. 문서를 꺼내어 원수의 앞에 펼쳐 놓았다. 아두가 말하기를, “청건데 이 문서를 가지고 일일이 해석하여 말해주십시오.”하였다. 원수가 대해 등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문서의 어떤 말이 좋지 않은가?” 하였다. 아두가 말하기를 “이 문서는 어찌서 평안관찰사가 답하였습니까?” 하니, 답하되, “우리나라의 법에 전부터 이웃나라와의 외교에는 반드시 근처의 감사가 그것을 주관하니, 일본과 통호할 때에도 곧 경상감사가 그것을 주관한다. 고로 지금 이와 같은 화의하는 일에 반드시 평안감사가 그것을 주관할 따름이다.”하였다. 아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후금이라 일컫는데 어찌하여 쓰지 않고 다만 건주라고 칭합니까? 이것은 이웃나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답하

기를, “우리나라가 건주라고 칭한 것은 전부터 이미 익숙한 것이다. 생각건대, 반드시 이 때문에 그렇게 칭하였다. 아래 글월에 ‘귀국’이라는 두자를 보아라. 즉 그것이 이웃나라로 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아두가 말하기를 “소위 馬法라는 것은 칸을 이릅니까?” 하니, 답하기를, “馬法은 칸 좌우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의 글월에 轉告 두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아두가 말하기를, “四郊多壘는 동서남북으로 우리나라를 포위함을 이릅니까?” 하니, 답하기를, “사교다보는 곧 고사일 뿐이니, 다만 천조가 사면으로 수비하는 것을 말할 따름이다. 귀국을 포위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아두가 말하기를, “전일에 정응정을 보내주었는데, 치사하는 말이 없습니다. 또 장졸을 구하여 찾는 말이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先爲出送 네 글자는 곧 후일 정하여 다 내보내 달라는 것의 근원이 되며, 隣好등의 말은, 살피보건대 치사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아두가 말하기를 “이 문서는 반드시 남조의 뜻이고, 조선의 사람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어찌 하여 그런 일이 있겠는가. 전일 귀국의 문서 중에 만약 먼저 대국을 범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 어찌 살피보지 않겠는가. 리는 말이 있었는데, 고로 우리나라가 이 말을 꺼낸 것이다.” 하였다. 대해등이 부끄러워 사과하며 말하기를 “소인은 문자를 조금 알아서 능히 해석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아두가 자못 안색을 펴는 기색이 있어 말하기를, “마땅히 칸 앞에 고하겠습니다.” 하였다.²¹⁾

21) 六月初一日, 阿斗彦加里大海劉海等請差官會于元帥所寓, 出文書展於元帥之前, 阿斗曰, 請將此文書一一解釋以言之. 元帥謂大海等曰, 此文書何語不好乎. 阿斗曰, 此文書何以平安觀察使答之乎. 答曰, 我國之規自來隣國之好, 必以近處監司主之, 如日本通好則慶尙監司主之, 故今此和事必平安監司主之矣. 阿斗曰, 我國後金號何以不書, 而只稱建州乎, 是不以隣國待我也. 答曰, 我國之稱建州者, 自前已熟, 想必以此而稱之, 以下文貴國二字看之則其不以隣國待之而然耶. 阿斗曰, 所謂馬法者指汗乎. 答曰, 馬法者指汗左右之人, 以下文轉告二字看之可知. 阿斗曰, 四郊多壘者, 以東西南北圍抱我國之謂乎. 答曰, 四郊多壘者, 乃是古語. 只言天朝四面防守之事耳, 非圍抱貴國之謂也. 阿斗曰, 前日出送鄭應井, 而無致謝之語, 又無求索將士之語, 何也. 答曰, 先爲出送四字, 乃後曰請盡出送之張本而隣好等語, 顧非致謝之意乎. 阿斗曰, 此文書必是南朝之意, 而差送朝鮮之人也. 答曰, 豈有此理, 前日貴國文書中有若有先犯大國之心青天豈不鑑察等語, 我國發此語也. 海等愧謝曰, 小的粗知文字, 不能解見矣. 阿斗頗有解顏之色曰, 當告汗前. (<책중일록> 123c-124b)

다소 길지만 강홍립의 사절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므로 6월 초1일의 일을 전문 인용하였다. 전달 27일 드디어 조선에서 사신이 도착했으나 누르하치는 문서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의 사신을 성 밖에서 돌려보내고자 하였다. 화친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된 것이다. 이에 홍립은 오랑캐 차관인 소농이를 설득하여 ‘서로 사용하는 말이 다르니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 두렵다’며 문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두, 언가리, 대해, 류해 등이 책중에 이르러 원수에게 문서를 보이게 되었다. 노추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답서의 주체가 평안관찰사라는 점과 후금의 국왕을 건주의 馬法으로 칭한다는 점, 四郊多壘라는 말이 의심스럽다는 점, 치사하는 뜻이 없다는 점 등이었다. 후금의 입장에서는 답서가 조선의 뜻이 아닌 남조, 즉 명나라의 뜻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홍립은 조목조목 이치를 따져가면서 반박하였다. 그리하여 후금은 애초의 뜻을 돌이켜 차관을 내성으로 불러들이게 된다. 후금 측의 통서가 조선으로 보내질 때에 중간에서 조종한 것도 강홍립이었다. 홍립은 차호가 떠나기 전에 문서를 확인하고 조선이라는 글자 위에 ‘爾’자가 있는 것은 이웃 나라가 서로 공경하는 도가 아니라고 말하여 문서에서 ‘爾’자를 지우도록 유도하였다.²²⁾

사실 강홍립은 외교적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한 문신이였다. 선조 30년(1597년)에 알성문과에서 급제한 그는 설서, 검열 등의 관직을 거쳐 1606년에는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으로 명에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어전통사(御前通事)로 선조대와 광해군대에 걸쳐 여러 차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책중일록> 속의 강홍립은 자신의 이러한 외교적 능력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조선을 위해 헌

22) 二十一日, 彦加里大海等來到柵中出示其書, 朝鮮字上皆有爾字. 元帥曰, 爾者乃下流相呼之語, 非隣國相敬之道也. 大海遂議於彦加里即抹去爾字. (<책중일록> 128c-128d)

신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이에 반해 <강로전> 속 강홍립은 염치라고는 모르는 변절자로 그려진다.

홍립이 하늘을 두고 맹세하였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하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선을 섬긴 것은 예양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은 범씨와 중행씨를 섬긴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대한 의식을 베풀어 주심은 왕명이 진나라 대왕 부견의 부름에 나아가 받은 지극한 대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 충성하는데 어찌 남조와 북조로 나누어 하겠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덕에 보답하는데 어찌 감히 많고 적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의 뜻을 글로 나타내어 두 마음이 없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²³⁾

이렇게 시를 지어 바치는가 하면 특별한 공을 세우기 위해 심양을 공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누르하치는 이런 강홍립에 대해 “공의 말은 잡초로 짖 막혔던 길이 터지듯 나를 문득 깨치게 한다”라며 신뢰를 보이고 후대한다. 또 나아가 강홍립을 원 태조의 재상 야율초재에 비견하며 개국 제1공신으로 치켜세운다. 심지어 강홍립은 누르하치가 내려준 여인 소씨녀를 첩으로 삼은 후에는 여색에 폭 빠져서 “인생을 재미있게 즐길 따름이다. 어찌하여 꼭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라며 귀국의 사조차 완전히 버린다. 누르하치가 권한 창기를 거절하는 <책중일록> 속 강홍립²⁴⁾과 대조적이다.²⁵⁾

23) <강로전>, 128쪽.

24) 11일, 노추가 술과 안주를 보내고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조선관원은 반드시 기녀女妓를 가까이 한다고 하던데, 지금 홀로 거처하게 할 수 없으니, 창기를 원하면 보내줄 것이다. 혼인하여 취하는 것과 비길 바가 아니니, 삼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원수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진 중에서 마땅히 한번 죽을 따름인데, 다만 양국의 화의하는 일로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여색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十一日, 奴酋送酒饌使人言曰, 吾聞朝鮮官員必近女妓云, 今不可獨處, 欲以養漢의送去, 非如婚娶之比幸勿以爲嫌. 元帥曰, 俺等在陣上即當一死, 而只以兩國和事到此, 豈有近女色之理乎. (<책중일록> 122c)

변절자 강홍립의 인물상은 정묘호란과 관련하여 정점에 이른다. 홍립은 가족들이 모두 주살되었다는 한윤의 말을 믿고 누르하치에게 상소를 올려 조선을 침공할 것을 주장한다. 조선 군비의 단점과 허점을 알려주는 극단적인 말부터 부녀자가 곱고 옥과 비단이 풍부하다는 회유의 말도 있었다. 그리고 출병할 것을 급히 청하는 상소를 수십 차례 올리기도 한다. 드디어 정묘년 조선 출정에 이르러서는 조선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육하여 오랑캐 장수가 오히려 만류하는 데 까지 이른다.

이민환이 그려낸 강홍립이 화의를 위해 일신의 굴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조국의 이익을 생각한 외교사절이었다면 권척이 그려낸 강홍립은 염치없는 변절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Ⅲ. <책중일록>과 <강로전>의 거리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책중일록>과 <강로전>에서 그려내는 강홍립의 인물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강홍립이 전혀 다른 행동을 동시에 했을 수는 없다. 역사적 인물로서 실존하는 강홍립 자신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그를 바라보는 두 작가, 이민환과 권척에 의해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중일록>과 <강로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금 이민환과 권척에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들이

-
- 25) 강홍립이 호중에서 여인을 가까이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실록에 따르면 인조 3년(1623년) 6월 평안감사 윤환이 “도원수 강홍립은 아직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달녀(獐女)를 주지 않고 한녀(漢女)를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았고, 한윤(韓潤) 형제는 성(姓)을 고치고 귀화해서 노한(老汗)이 매우 후대하여 호녀(胡女)를 아내로 주었다”고 치계하고 있다. 강홍립은 이 여인을 조선까지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죽음 이후 이 여인에 대한 처우에 대한 논란이 조정에서 일었는가 하면 명나라에서 온 사신 중 한명이 이 여인이 죽인이라며 데리고 가기를 원했다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처한 입장이 어떠했으며, 왜 이 작품을 남겼는지에 대한 해답은 결국 이 두 작품의 거리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1620년 7월 드디어 후금에서 풀려난 이민환은 그러나 ‘오랑캐에 항복하여 절의를 잃은 사람’으로 몰리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야했다. 1620년 8월 20일 조선으로 돌아온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으며²⁶⁾ 심지어 송환 후 15년이 지난 1635년에도 이민환은 똑같은 이유에서 비난을 받고 현감의 직책에서도 쫓겨나야만 했다.²⁷⁾ 사대부로서의 관직생활이 가로막히게 된 것이다.

조정에서의 평가와 함께 세간의 소문 역시 이민환에게는 부정적이었다. 특히 교일기를 포함한 명군을 이민환이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유언비가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인다. 조위한의 『최척전』에는 교일기가 패잔병을 이끌고 조선 군영에 들어와 조선 병사의 옷을 달라고 애걸했는데, 종사관 이민환이 누르하치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서 옷을 빼앗고 붙잡아 적진으로 보냈다고 묘사되어 있다.

26) 함께하였다. “적에게 항복을 하면 배임을 당하는 것이니,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꾸어 고칠 수 없는 몇몇한 법입니다. 정응정(鄭應正)은 오랑캐 진영에 있다가 왔는데도 배임을 당하지 않았고, 또 이민환(李民奐)·문화성(文希聖)·이일원(李一元)은 온 지가 오래되어 장차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부월을 감추고서 쓰지 않는다면, 적에게 항복한 자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염려하는 것은, 이 적을 बे지 않는다면 응정이나 민환같은 무리들이 뒤를 이어 일어날 것이며, 군율이 해이되어 장차 외적을 방어할 수 없게 되어 나라가 따라서 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워하며 망설이지 말고 흔쾌히 결단을 내리시어 네 적들을 참수하고 이들을 국경에서 효수하여, 신하로서 적에게 항복한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광해군 일기』 권 155 광해군 12년 8월 을축).

27) 간원이 아뢰기를, “형조 정랑 권칭(權稱)은 역적 이기안(李基安)의 장인으로로서, 기안 이 배임을 당한 뒤에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젓이 행공(行公)하였습니다. 사관(仕版)에서 지위버리도록 명하소서. 홍원 현감(洪原縣監) 이민환(李民奐)은 오랑캐의 궁정에서 무릎을 꿇어서 사대부의 대열에 들지 못한 지가 오래인데 갑자기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직에 제수되었으므로, 물정이 온통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체차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인조실록』 권 31 인조 13년 4월 병신).

이민환은 이러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민환은 <책중일록>에서 교일기의 죽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의 죽음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 자살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교유격이 군관들에게 말하기를 “귀군이 적에게 이처럼 꺾박을 받고 있으니, 내가 비록 함께 간다고 한들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나. 편지 1통을 맡겨 자식에게 전해주길 부탁하고 바로 절벽으로 뛰어내려 죽었다.²⁸⁾

그리고 주(註)를 통해 “지금 들으니 진중에서 교유격을 잡아다가 적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말의 망측함이 하나같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가 쓴 편지를 우리들이 삼가 가지고 왔다”²⁹⁾라고 부연을 하고 있다. 특히 감정적 표현을 거의 자제한 객관적 기술을 사용한 본문과 달리 ‘罔極’, ‘切痛’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상세한 주는 이민환의 해명의식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는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민환의 해명의식은 이민환 사후 그의 후손에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대에 간행된 『자암집』 서문, 후지, 이민환의 비명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익과 이광정의 『자암집』 서문, 유승현의 초간본 후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문집 간행의 주된 이유는 바로 심하 전투에서 절의를 버렸다는 세간의 비난을 변론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⁰⁾ 이민환의 외손이 되는 이옥(李沃) 역시 비명(碑銘)에서 세간에 이민환에 대해 글로 헐뜯고 비방하며 더럽히고 쾌락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으나 듣는 자들이 살피지 아니하고 전하는 말에만 익숙하여 그를 오

28) 喬遊擊謂軍官輩曰，貴軍爲賊所迫如此，我雖同去必不得免，附一書使傳其子卽墮崖死。(〈책중일록〉 120d)

29) 今聞有以陣上縛喬給賊爲言者，言之罔極一至於此耶，其手書生等謹藏以來矣。(〈책중일록〉 120d)

30) 안세현, 앞의 논문, 115쪽.

래도록 어두운 구석에 버려두었음을 한탄³¹⁾하였다. 이렇듯 <책중일록>의 집필배경에는 ‘포로 이민환’의 해명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민환이 강홍립의 언행에 대해 집요할 정도로 하나하나 상세히 기술하여 그를 절개와 신의를 지킨 인물로 그려낸 것도 납득할 만하다. 이민환은 강홍립에게 포로가 된 장병들, 즉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권척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민환이 포로가 되었다가 송환된 인물이었다면 권척은 ‘달아난 인물’이었다. 성대중의 『청성잡기』에 따르면 권척은 “적진을 탈출해 돌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정확히 언제 탈출했는지 3월 4일 전투 직후인지 아니면 홍경으로 끌려간 이후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척이 달아난 사람이고 그것은 그에게 적지 않은 부채의식으로 작용했을 터이다. 전투에서 장렬한 전사한 인물에게 연민과 숭앙의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³²⁾ 그러나 도망쳐 돌아온 인물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살아남아 포로가 된 인물들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몽인은 권척에 대해 “유독 전쟁하는 동안에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애석하다”라고 꾸짖고 있다. 극단적이지만 김응하처럼 죽는 것이 절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달아난 것은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는 인식이 세간에 있었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척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처지와 반대되는 살아남아 포로가 된 인물들을 더욱 더 부정적으로 그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후금의 포로가 된 무리들은 부정한 변절자이고 그곳에서 탈주하여 돌아온 자신은 오히려 도덕성을 회복한 인물이라는 논리인 셈이다.

이와 동시에 권척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심하전투가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623년 인조반정이

31) 『국역 국조인물고』 권 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4, 참조.

32) 심하전투의 경우 대표적인 인물로 김응하를 들 수 있다.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된다. 광해군은 강홍립의 처벌을 주장하는 신료들을 만류하고 국서를 교환하며 사절을 왕래시키는 등 후금과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기미책을 사용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광해군이 대명·대후금 정책을 떠나가는 과정은 인조반정의 주체들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광해군이 취한 대명·대후금 정책의 내용과 성격은 인조반정의 주체들이 광해군 정권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데 명분적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³³⁾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들은 광해군 폐위와 인조 왕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가지 명분³⁴⁾을 내세웠는데 바로 그 중 하나가 임진왜란 때의 ‘재조지은’을 배신하고 후금에 화친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었다. 새롭게 재편된 조정은 이전보다 더욱 더 명을 추중하고 후금을 오랑캐로 깔보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묘·병자호란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미 청이 대륙의 주인이 되었으니 직접적으로 그들을 타도할 수는 없었지만 사대부들의 문학 속에서는 오히려 숭명배호(崇明排胡)의 입장이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되기에 권척은 광해군의 충신으로 그의 대외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강홍립을 적극적으로 비난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 보니 강홍립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들의 장르 선택의 문제도 달라졌다. 제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책중일록>은 ‘일록’, <강로전>은 ‘전’을 통해 강홍립을 그려내고 있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오명을 풀기 위해서 이민환은 심하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했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사실로 보여야 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매일 매일의 일상을 빠짐없이 기술한 ‘일록’은 그 자체로 거짓이 없음을 자명하게 보여줄 수 있

33) 한명기, 앞의 책, 306쪽.

34) ‘폐모살제(廢母殺弟)’와 같은 인륜적인 측면의 문제점, 궁궐 영건 등 토목공사를 빈번하게 일으켜 민생을 파멸하게 만들었다는 것, “후금과 화친정책을 펴므로써 명을 배반했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명기, 앞의 책, 307쪽).

는 작품이었을 것이다. 일록과 같은 실기류는 자명한 실재의 사건을 기술³⁵⁾하는데 이 대상은 반드시 자기가 경험한 것이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³⁶⁾ 결국 이민환은 일록을 통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건의 실상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추구했던 것이다.

물론, 이민환의 <책중일록>이 17세기 임병양관 이후 급속히 늘어난 대부분의 포로실기와는 그 서술방식에서 변별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포로 실기가 보통 1인칭의 ‘나’로 나타나는 서술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포로생활을 가능한 사실 그대로 서술³⁷⁾한다면 <책중일록>에서 이민환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태를 서술하거나 대화를 그대로 기록할 뿐, 자신의 논평이나 감정의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³⁸⁾ 그렇다보니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대부분의 포로실기에서 나오는 감정적 표현이 극히 드물어 건조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 역시 이민환의 해명 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개인 이민환의 사적인 감정 대신에 공인인 종사관 이민환의 입장에서 원수 강홍립과 그 주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자신과 포로들에 다름 아닌 강홍립을 긍정적으로 그려 나아가 자신의 오명을 벗고자 했던 것이다.

전은 “인간의 선행이나 미덕을 표창하고 악행을 貶微하며, 그것을 역사 속에 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책무로 삼는다.”³⁹⁾ <강로전>에서 ‘姜虜’는 곧 ‘姜오랑개’라는 뜻이니, 강홍립이 오랑개인 후금에 항복한 것을 더럽게 여겨 붙인 명칭이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포폄(褒貶)의 의도를 명백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⁴⁰⁾ 포로가 되어 후금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대표 격인 강홍립. 살아 돌아왔기에 절개를 잃었다고 비난받은 권척의 입장에서 이 강홍립을 비난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택한 것이 바로 전을

35) 정환국, 「17세기 실기류와 소설의 거리」, 한문학보 제7집, 2002, 참조.

36) 김경남, 『서사문학의 전쟁소재와 그 의미』, 보고사, 2007, 135쪽.

37) 이채연, 『임진왜란과 포로실기』, 박이정, 1995, 191~193쪽, 참조.

38) 안세현, 앞의 논문, 133쪽.

39) 박희병,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1, 14쪽.

40) 박희병, 앞의 논문, 1998, 46쪽, 참조.

통한 포퓰이었다.

박희병은 <강로전>이 부정적 인물을 입전하는 傳의 전통을 轉用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큰 테두리에서는 전의 글쓰기 방식에 입각해 창작되었다고 설명한다.⁴¹⁾ 전은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삽화들과 의론을 통해 실존했던 인물의 생애를 세상에 전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 사실지향적 문학이다. 그러나 전의 규범적 특징이 그러할지라도 때때로 전은 서사적 줄거리를 갖추기도 하고 허구적으로 장면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전은 소설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셈이다. 권척은 <강로전>을 지으면서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전을 짓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강로전>은 심하전투와 정묘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강홍립이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과장 윤색하면서 허구적 성격까지 보인다. 특히 후반부 강홍립과 소씨녀와의 애정담 부분은 전기소설의 남녀주인공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⁴²⁾ 왜 하필 후반부에 이러한 과장, 윤색이 두드러질까. 그것은 아마도 권척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권척은 달아난 인물이다. 그러다보니 그 이후 강홍립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민환에 비해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었을 터이다. 결국 실제로 보고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간의 소문 혹은 상상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민환과 권척이 그려내는 강홍립의 문학적 형상화의 거리는 곧 두 사람이 처한 입장 간의 거리였던 것이다. 자신에게 씌어진 오명을 벗고자 했던 이민환에게 강홍립은 자신의 또다른 모습에 다름 아니었고 그런 강홍립은 어쩔 수 없이 진창에 빠진, 그러나 여전히 절의를 지키는 선비일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인조반정과 정묘·병자호란 이후 광해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본인 스스로도 강홍립에 대해서도

41) 위의 논문, 52-53 참조.

42) 위의 논문, 45-46쪽 참조.

덕적 우위에 설 필요가 있었던 이민환에게 강홍립은 부정과 비난의 대상으로 그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민환은 자신이 묘사한 강홍립의 언행에 진실성을 부가하기 위해 사실적 장르인 일록을 선택했고 반대로 강홍립은 포퓰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전을 선택했던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이민환의 <책중일록>과 권칙의 <강로전>을 중심으로 심하 전투의 주역인 강홍립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책중일록>에서 강홍립은 대내외적인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을 잘 이끌고자 노력한 인물이었으며 동시에 패배한 뒤에도 체면과 엄치를 지키며 화의를 택한 인물이었다. 이에 반해 <강로전>에서 그리는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지를 핑계삼아서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교활한 책략가에 비굴하게도 오랑캐에 무릎을 꿇은 항적이었다. 후금의 포로생활 중의 행적에 대해서도 두 작품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다. <책중일록>의 강홍립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외교사절이었는데 반해 <강로전>에서 강홍립은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판 변절자로 그려진다.

이러한 전혀 다른 두 모습의 강홍립이 그려진 것은 바로 두 작가의 입장이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랑캐에 항복한 인물로 관직 생활에 제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민환은 자신들은 항복한 것이 아니라 화의했으며 절개를 지켰다고 그 실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하여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인 원수 강홍립을 내세웠던 것이고 효과적인 서술을 위해 사실지향적인 일록의 형태를 통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했다. 권칙은 도망친 자로서의 자신의 도덕적 위상을 위해 그와 반대되는 위치의 장령들을 대표하는 강홍립을 비난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강홍립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결국 권척은 포폄의 의도를 명확히 하여 강홍립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평가하기 위해 전을 창작했던 것이다.

17세기 이후 후금은 청으로 국명을 바꾸고 명실상부한 대륙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조선 내부의 배척의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강홍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고착화되었다. 이민환이 그려내고자 했던 절개를 지키는 선비이자 조국을 위해 노력한 외교사절로서의 강홍립의 모습은 사라지고 <강로전>에서 보여지는 부도적인 민족의 변절자 상만이 남은 것이다. <강로전>은 국문으로 번역되어 민간에 유포⁴³⁾될 정도로 널리 읽혀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강로전>에서 그리고 있는 인물상이 세간에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홍립에 대한 인식은 비단 상층 사대부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임진왜란을 다룬 허구적 소설인 <임진록>에 강홍립이 등장한다. <임진록>에서 강홍립은 김경서와 왜국을 정벌하러 떠나지만 패배하고 왜국의 공주와 혼인하여 나라를 저버린 변절자로 그려진다. 강홍립은 항복한 비겁한 장수, 변절한 장수라는 형상만 남아서 <임진록>의 한 삽화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실재했던 역사가 어떻게 작가의 혹은 시대의 이념에 따라 재구성되어 문학으로 탄생하는가, 그 생생한 모습을 <책중일록>과 <강로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3) 위의 논문, 66쪽 참조.

참고문헌

- 이민환, <책중일록>, 『자암집』, 한국문집총간 82.
- 권칙, <강로전>, 신해진 역, 『권칙과 한문소설』, 보고사, 2008.
- 『국역 국조인물고』 권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4.
- 조선왕조실록 CD자료.
- 고윤수,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 123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 김경남, 『서사문학의 전쟁소재와 그 의미』, 보고사, 2007, 135쪽.
- 박희병,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1, 14쪽.
- , 「17세기 초의 승명배호론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 문학 上』, 집문당, 1998, 46-66쪽.
- 안세현, 「자암 이민환의 <책중일록>과 <진주견문록>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제34집, 동방한문학회, 2008, 115-133쪽.
- 이채연, 『임진왜란과 포로실기』, 박이정, 1995, 191-193쪽.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244-307쪽.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Imagery about Kang Honglib

- Focusing on <Chaekjoong-illok> and <Kanglo-jeon> -

Park, Yang-Ri

This study discusses the literary imagery of Kang Honglib, an existential person from history depicted in <Chaekjoong-illok> by Lee Minhwan and <Kanglo-jeon> by Kwon Chik.

In <Chaekjoong-illok>, he was depicted as an experience person who tried to arrange his troop despite the unfavorable situations, and at the same time, who chose to negotiate for peace without losing face after defeat. Unlikely, In <Kanglo-jeon>, he was depicted as a sneaky tactician who drove his men into death by a reason of secret orders from Gwanghaegun and a obsequious person who kneeled down to barbarians. Also two books describe differently of the time he was captived in Hukeum. In <Chaekjoong-illok>, he was a diplomatic envoy who used his ability for the sake of country, on the other hand, <Kanglo-jeon> depicted his as an apostate who betrayed his country for his own wealth and honor.

Such opposed descriptions on one person is because of the different points of view of the authors. Lee Minhwan hardly entered government service because he was one of the people who surrendered to barbarians thus he wanted to explain that they are not surrenders but negotiated for peace and kept their loyalty through the

<Chaekjoong-illok>. So, he supported Kang Honglib who can represent his position, and tried to show subjective attitude through the writing form of daily record for greater effect. Besides, the social atmosphere in that era was against Kang. Honglib As a result, Chik Kwon wrote the <Kanglo-jeon> to draw negative portrait of Kang Honglib with an intention of criticism. The <Chaekjoong-illok> and the <Kanglo-jeon> shows how the real history can be restructured and rewritten by the ideology of author or the era.

Key Words : Kang Honglib, Battle of Simha, <Chaekjoong-illok>, <Kanglo-jeon>, Literary Imagery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